

윤석민 또 4실점 “안풀리네”

시범경기 LG전 150km 찍고도 밸런스 흔들... KIA 2-4 패배

마무리 한기주는 호투

타이거즈 출신의 신구 에이스 맞대결이 펼쳐졌다.
KIA 타이거즈가 28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시범경기에서 선발 윤석민의 난조속에 2-4로 패했다.
이날 KIA 에이스 윤석민과 LG 유니폼을 갈아입은 '에이스 오브 에이스' 이대진의 선발 대결이 이뤄졌다.
점수는 윤석민이 먼저 내렸다.
3회초 첫 타자 조윤준에게 중견수 키 넘기는 2루타를 허용한 윤석민이 오지환에게 볼넷을 내주며 무사 1·2루에 몰렸다. 박용택을 상대로 병살타를 유도했지만 이진영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0-1이 됐다. 이후 이병규와 정성훈에게 연속안타를 맞으면서 점수는 3-0이 됐다.
3회말에는 이대진이 흔들렸다. 2사에서 김선빈에게 첫 안타를 내준 이대진이 이용

규의 내야안타로 2사 1·2루의 상황을 맞았다. 신종길의 3루타가 이어지면서 주자들이 홈을 밟았다.
마운드는 이대진이 먼저 내려갔다. 4회를 삼자범퇴로 막았던 이대진은 5회 1사에서 박기남과 김선빈에게 연속해서 볼넷을 내준 뒤 경원호와 교체됐다.
윤석민은 4·5회를 삼자범퇴로 정리했지만 이병규의 내야안타로 6회를 시작했다. 대주자로 들어간 LG 김일경이 도루에 이어 정성훈의 땅볼로 3루까지 진투했다. 윤요섭의 깊숙한 중견수 플레이가 나오면서 윤석민은 4번째 점수를 내렸다.
윤석민은 시범경기 두 번째이자 마지막 등판에서 5와 3분의 2이닝 동안 7개의 피안타와 3개의 볼넷으로 4실점을 기록하며 부진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50km를 기록했고, 슬라이더도 144km를 찍었지만 밸런스가 흔들리면서 제구가 불안했다.
윤석민은 “앞서 사직 경기가 취소되면서

오랜만에 나와 경기감각이 떨어졌다. 첫 등판에서도 실점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지만 오늘은 밸런스가 안 좋았다. 시범경기 등판은 다 끝난 만큼 남은 기간 이상적인 밸런스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발이 흔들렸지만 KIA 계투진은 깔끔한 투구로 추가 실점을 하지 않았다. 윤석민에 이어 김희걸·심동식·한기주가 차례로 마운드에 올라 7·8·9회를 무실점으로 막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선동열 감독은 “윤석민이 오랜만의 실전 등판이라 밸런스 등이 안 좋았지만 좋은 선수라 알아서 시즌 준비를 잘할 것이다. 후속으로 나온 투수들은 좋았다. 모든 선수들을 여러 경우의 수를 가지고 평가하고 준비하는 단계라서 마무리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한기주는 좋은 볼을 던졌다”고 평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날은 김선빈 “더블이아”

KIA 김선빈이 28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LG와의 시범경기에서 3회초 박용택의 타구를 잡아 주자 오지환을 2루에서 포스아웃 시킨 뒤 1루에 공을 뿌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되레 기분 좋아요... 맞으면서 크는거죠”

프로무대 첫 피홈런 한승혁

“맞고 나니 기분이 좋네요.”
KIA 마운드의 기대주 한승혁은 27일 LG와의 경기에서 7회 등판해 김재음에게 슬라이더를 강타당했다. 시범경기이기는 하지만 한승혁의 프로무대 첫 피홈런.
한승혁은 이날 3분의1이닝동안 2개의 피안타와 몸에 맞는 볼 1개를 기록하고 마운드

를 내려왔다. 탈삼진도 하나 뽑아냈지만 한승혁의 기대치에 비하면 아쉬운 피칭이었다. 그러나 답사자는 오히려 출기분하다는 반응이다. “맞으면서 크겠다”는 각오다.
한승혁은 “그동안 재활에만 신경 썼는데 홈런을 맞으면서 잊고 있던 감각들이 깨어 나는 기분이다. 예전에 경기하던 상황들도 생각나고 자극제가 된 것 같다. 이제는 경기 전반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공을 던지겠다”



고 말했다.
또 “직구 위주로 던져와서 아직 변화구가 좋지는 못하다. 계속해서 직구 승부를 했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피하려다 맞은 게 아니고, 변화구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만큼 후회는 없다. 고등학교 때는 홈런을 맞은 적이 없는데 중학교 이후 처음 홈런을 맞았다”고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덕아웃 말말말

SUN, 조계현 코치 캐치볼 보고 “너 현역해라”

▲현역해도 되겠네 = LG 조계현 수석코치가 캐치볼 하는 것을 본 KIA 선동열 감독.
▲잘 던져라 = KIA 선동열 감독, LG 선발로 나온 이대진이 덕아웃에 인사하러 오자.
▲작업 다 해냈습니다 = 경기전 LG 이대진과 마주친 KIA 김상훈이 편하게 공을 던

지리면서 농담으로.
▲후배 사랑이죠 = 4개의 배트를 들고 나타난 KIA 나지안, 단국대 후배인 LG 정병근을 주려고 챙겨왔다면서.
▲슬라이더를 남발했어 = 27일 경기에서 13개의 공을 던진 KIA 투수 이정훈, 슬

라이더를 11개 던졌다며.
▲나도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 27일 공에 손을 맞고 교체됐던 LG 이대형, 골절된 줄 알았다는 취재진의 얘기에 괜찮다면서, 이대형은 왼손등 타박상을 입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F1 보러 영암 오세요”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앞두고 28일 오전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12 F1 코리아 그랑프리 그랜드 론칭쇼'에서 레이싱 모델들이 F1 머신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현 전남지사를 비롯해 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이창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 기업인, 언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F1조직위원회 제공>

F1 코리아 힘찬 ‘시동’

‘그랜드 론칭쇼’ 티켓 판매 돌입
체험학습용 1~2만원대 티켓도

‘총알 탄 사나이들의 질주’ F1 코리아그랑프리(10월 12일~14일)의 티켓이 첫 공개 됐다.
F1 조직위원회는 28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이번 대회 운영방향을 소개하고, 티켓을 공개하는 ‘그랜드 론칭쇼’를 열었다.
이날 그랜드 론칭쇼에서는 F1 조직위원회와 여행사 관계자 안론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추진 계획과 운영방향 등이 소개되고 티켓 오픈 행사, 축하공연 등으로 펼쳐졌다.
올 F1 티켓은 지난해 5개(R·S·A·B·C)였던 등급을 3개 등급(R·S·A)으로 단순화시켰고, ‘옥션티켓’을 통해 구매절차도 간소화한 게 특징이다. 가격은 R급 2만(금요일)~89만원(전일권), S급 1만5000원~60만원, A급은 1만원~12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35만원에서 32만원으로 조금 싸졌다.
초·중·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체험학습 코스로 관람할 수 있는 1~2만원대 금요일권 저가 티켓도 신설했다.
또 조기할인 시스템을 통해 4월말까지 30%, 5월말까지는 20%(금요일권 제외) 할인 혜택을 준다. 15세 이하 청소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50%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그랜드 론칭쇼 현장에서 1억원 이상의 티켓이 판매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_ 062-221-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25,000 부터~
(세금 별도)